

보도자료



K I H A S A
한국보건사회연구원
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

<https://kihasa.re.kr>

보도내용	□ 보건복지 이슈엔포커스 제454호 발간 -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적절성과 노인 빈곤 현황
분 량	총 2매
배포일시	2025년 2월 25일(화)
보도일시	즉시

한국의 노인소득에서 노령 및 유족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, 유럽 8개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

- 유럽 8개국의 노령 및 유족 관련 급여 비율은 50~80%대, 한국은 20~30%대에 불과
-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유럽 8개 복지국가에 비해 포괄 대상도 적고, 급여 적절성(소득대체율, 최저소득보장)도 낮아… 그 결과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2.3%(중위소득 40% 기준)로 유럽 8개국의 5% 내외에 비해 현저히 높아
-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은 상당 부분 낮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 수준 때문…노령 및 유족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율과 최저보장, 연금 크레딧·보험료 지원제도 기능 등 강화해야

※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,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둡니다.

※ 이 글은 본원에서 수행한 여유진, 이주미. (2023). 『유럽 복지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노인 빈곤』의 일부를 발췌·수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.

- 한국보건사회연구원(원장 신영석)은 『보건복지 이슈엔포커스』 제454호 '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적절성과 노인 빈곤 현황'를 발간했다. 저자는 빈곤불평등연구실 여유진 선임연구위원이다.
- 여유진 선임연구위원은 “이번 연구에서는 유럽 8개국(스웨덴, 핀란드, 네덜란드, 영국,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그리스)과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공적사회지출 수준, 노령 및 유족 관련 급여 수급률,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, 최저소득보장 수준 등 노후소득

보장의 적절성을 비교했다.”면서, “이를 통해 한국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개혁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.”고 설명했다..

- 이어서 여 연구위원은 “노령 및 유족 관련 공적사회지출이 GDP 대비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,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은 3.5%로 OECD 평균(8.2%)을 하회하고 있다.”면서 “이는 독일(10.4%), 프랑스(13.9%), 스웨덴(9.3%), 이탈리아(16.0%) 등 유럽 주요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.” 고 강조했다.
- 또한 “유럽 8개국은 노인 가구의 경상소득에서 노령 및 유족 관련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~80%대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해, 한국은 20~30%대에 불과”한 것이 노인 빈곤의 주 원인이라고 주장했다.
- “그 결과 유럽 8개국에서는 중위소득 40% 기준 노인 빈곤율이 5% 내외로 낮게 나타났지만 한국의 경우 22.3%로 유럽 8개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”이라며 “이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 수준이 비교 대상국들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.”라고 분석했다.
- 이어서 그는 “연금의 생애주기 간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,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의 최저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, 연금의 기여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확대, 연금 크레딧 강화, 기여연령 연장 등 다각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.”고 말했다.

※ 이슈애포커스 제454호 원문 보기

<https://repository.kihasa.re.kr/handle/201002/47005>